

# 민주 '쌍특검' 추진 의지 재확인... 정의당 설득 나서

〈김건희·대장동〉

### 이재명 "대통령실 나서 김여사 엄호...유일한 수단은 중립적 특검" 정의당과 대상·추진 방식 놓고 이견...민주 "국민의 뜻 외면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을 누려 불벌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

를 잃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도 못 가 대통령실이 또 나섰다. 김 여사 방탄을 위해 하루가 멀다고 입장을 내놓는다"며 김 여사 엄호에 나선 대통령실을 비난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의 개인 비리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체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까지 나서 법원 판결을 호도하는 데 1심에서도 부실했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며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국민특검'을 꼭 관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해당 의혹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위치가 검찰총장이었느냐,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턴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 목숨을 건 철벽 방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대장동 특검'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분노한 민심에 놀란 검찰이 수사팀 보강이나 뒷북을 치지만 이미 국민은 검찰 수사에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며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특검의 대상과 추진 방식 등을 두고 여전히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물밑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의 반대로 '특검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민주당은 당분간 정의당 설득전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 위해 최소 180석이 필요한 만큼,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향해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 여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기 바란다"며 "압도적인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해도 8개월이 걸려 10월, 11월까지 가야 한다"며 "정의당에도 말씀드린다. 시간이 없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책 수립해야"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정부, 난방비 폭탄에도 그린리모델링 예산 축소"

#### 조오섭 의원 "부자에만 더 혜택"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15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인 예방책인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취약계층보다 고가주택, 건물주 등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4~2022년까지 추진한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실적은 총7만1281건, 집행액은 323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됐던 2014년352건(20억원)에서 2021년 1만1955건(102억원)으로 승인건수는 34배 증가했고, 예산도 약5배 증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7217건으



로 사업건수는 급격히 줄었고 2023년 예산은 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가 삭감됐다. 국토부가 예산을 줄이는 반면 이자지원율은 기존 3%에서 4%로 인상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 사실상 사업대상이 대폭 축소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또 국토부는 올해부터 ▲가구주택 보증제한기준(9억~12억) 상향 ▲부동산 등록대상 이력기제 ▲대출없는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 조세·재정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며 "에너지취약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본회의 직회부' 법사위서 충돌

양곡법·간호법 등...민주 "위원장 단독 소위 회부 권한 없어"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법안 본회의 직회부와 법사위의 체계·지구심사 권한을 놓고 대립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의 개회 후 법안심사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시작도 못한 채 약 40분간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육박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도중 "대통령 하는 것이 지금 독재하고 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은 손가락질 받을 만하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아디서 손가락질하나"(민주당 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은 본인을 돌아보라"(김도읍 위원장) 등 발언을 주고받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상임위원회의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과 간호법 제정안(보건복지위) 등을 예로 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양곡관리법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간호법 제정안 역시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오광록 기자 kroh@

### 민주광주시당 '지진 피해' 돕기 튀르키예에 1억 5천만원 물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지원활동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은 텐트 제조업체 '아누(ANUK)'의 지원을 받아 1억5000만원 상당의 텐트 70개를 튀르키예에 보내기로 했다. 광주시당은 오는 21일까지 광주시당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금은 공식적인 기부 절차에 따르며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진과 함께 불어 닥친 한파와 열악한 환경으로 생존자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 광주과기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

#### 이용빈 의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15일 광주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관을 통한 부설기관 설립 ▲정관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과학영재학교 교직원에 관한 사항 ▲과학영재학교에의 교원 파견 등이 핵심 골자다.

그동안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만 규정돼 타 과학기술원은 부설기관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원 부설로 과



학영재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과학영재를 육성함에 있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하는 등 과학영재에 대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용빈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의 격차 해소가 어려웠다"며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것은 과학영재를 육성함에 있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과학영재에 대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축원룸(상가) 매매	상가매매(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충남 당진시 대산항, 화력발전소 5분 임대걱정없음</p> <p>▶ 월수익 → 750만 (년9,000만)</p> <p>시세 19억 급매 14억5천 (용7억)</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p> <p>▶ 유흥가능 (전용 100평)</p> <p>▶ 시세 - 10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보3천, 월수익 380만)</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용봉동 (상가빌딩)</td> <td>▶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td> </tr> <tr> <td>북구 신안동 (상가빌딩)</td> <td>▶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남구 사동 (토지)228평</td> <td>▶ 감정가 20억 → 최저가 20억</td> </tr> <tr> <td>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td> <td>▶ 감정가 16억 → 최저가 4억8천</td> </tr> <tr> <td>나주 봉화면 (과수원)</td> <td>▶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td> </tr> <tr> <td>장성 동화면 (과수원)</td> <td>▶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td> </tr> <tr> <td>장성 북이면 (잡종지)</td> <td>▶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td> <td>▶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td> </tr> </table>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남구 사동 (토지)228평	▶ 감정가 20억 → 최저가 20억	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	▶ 감정가 16억 → 최저가 4억8천	나주 봉화면 (과수원)	▶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장성 북이면 (잡종지)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남구 사동 (토지)228평	▶ 감정가 20억 → 최저가 20억																	
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	▶ 감정가 16억 → 최저가 4억8천																	
나주 봉화면 (과수원)	▶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장성 북이면 (잡종지)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010-6670-9800		010-2614-9801																